그리스도 왕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뉴스 (통권 49호)

주 소: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36길 7
발행인: 이계철 라파엘 주임 신부님
편 집: 시흥4동 성당 기획, 홍보분과
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sh4d

성지 순례와 노후 지친 건강 치료한 가을 나들이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노년분과 소속 행복 시니어 아카데미는 10월 30일(수) 학생과 봉사자들을 포함한 37명이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한광 참 숯 불가마와 한국 천주교 발상지인 천진암 성지를 같은 날 성지 순례 겸 가을 건강 나들이를 하였다.

이번 건강 나들이 겸 성지 순례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도착한 한광 참숯 불가마에 시니어 학생들은 참나무로 데워진 황토 불가마 중 온도 실과 꽃 온도실 속에서 노후에 지친 피로와 체내 불순물을 씻어내는 땀방울이 온몸을 흠뻑 적시어 내면서 고달픈 인생사를 찜질로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우리나라 천주교의 발상지인 천진암 광암성당 천진암 주임 신부님(송병섭, 요셉)께서 12시에 집전하는 평일미사 말씀의 전례에서 '나의 하느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란 고백을 해야 한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으나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란 강론과 영성체를 분배하시고 '임금님으로 모신 우리는 성체를 내 몸 안에 모신다는 고백을 해야 한다' 란 말씀과 미사전례를 마친 후 엄마의 손맛이 깃들고 향수가 있는 구수한 한식 부뷔로 배를 채우고 주임신부님께서 시흥 4동 성당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100년 성지를 건축하기 위해 터를 다져 놓은 장소까지 차량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어 힘들지 않게 이동하였다. 대성당 머릿돌에는 '하느님이 보우하시니 겨레가 영원 화목하시기를 비노라' 199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축복 글이 있다. 천진암 강학은 경서를 공부하며 심신 수양하는 유교 선비들 모임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천학 서적을 통해 깨달았던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한 진리 속에 천주교 신앙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이 선비들은 한국에서 처음 천주교 신앙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마침내 순교까지 하였다. 대성전 주춧돌을 우측 동산에는 세계평화의 성모님상을 청동으로

제작한 25미터의 높이로 천상의 주님과 세속의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습은 순례자에게 위안과 평화를 주며, 우측으로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5위 복자 선암 정약용, 하느님의 종 만천 이승훈, 광암 이벽, 지암 권일신, 녹암 권철신 묘소가 안장되어 있으며, 100년 계획으로 2079년 완공 계획으로 천주교 신자들의 자존심이 자아내 누군가에 선교를 받았지만 우린 주님을 스스로 찾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진암 대성전 기초 터를 보고 실감한 순례 행사였다.